

친환경차 잘 달렸다... 지난해 국내 판매 10만대 육박

2016년보다 41.6% 증가 9만7486대 하이브리드차 85.9%, 전기차 14% 기아차 '니로' 2년 연속 가장 많이 나가 완성차업체 올해도 다양한 신모델 출시

지난해 친환경차 국내 판매 규모가 10만대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는 다양한 신모델 출시가 예정된 만큼 최초로 '연간 10만대 판매 고지'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사 자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차와 수입차를 합한 국내 전체 친환경차 판매량은 총 9만7486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연간 판매량인 6만8826대와 비교해 41.6% 성장한 것이다.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2015년 처음으로 4만대를 넘어서고 2016년에는 6만대를 돌파하는 등 해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이 같은 성장세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가 주도했다.

작년 한 해 하이브리드차는 총 8만3762대 팔려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판매량은 14.1%인 1만3724대였다.

여전히 하이브리드차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6년(91.4%)과 비교하면 점유율이 다소 줄었다. 해당 감소분은 처음으로 연간 1만대 판매를 돌파한 전기차가 대체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기아차가 72.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두 회사의 지난해 판매량은 현대차가 3만6423대(37.4%), 기아차가 3만4597대(35.5%)였다.

수입차는 2만3011대로 23.6%를 차지했

고 이어 르노삼성 2.8%(2705대), 한국지엠 0.6%(623대) 순이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친환경차 모델에는 2년 연속 기아차 니로(2만3647대)가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1만8491대

로 2위였고, 아이오닉 시리즈(하이브리드·전기)는 1만2399대 판매대 뒤를 이었다.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300h가 총 7627대로 최대판매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1만8491대



기아차 '니로'

로 2위였고, 아이오닉 시리즈(하이브리드·전기)는 1만2399대 판매대 뒤를 이었다.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300h가 총 7627대로 최대판매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1만8491대

로 2위였고, 아이오닉 시리즈(하이브리드·전기)는 1만2399대 판매대 뒤를 이었다.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300h가 총 7627대로 최대판매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1만8491대

다. 기아차는 하반기에 니로EV와 쏘울 EV의 후속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높은 수요에도 물량이 달려 충분히 판매하지 못했던 볼트EV의 사전계약을 15일부터 받는다. 현재 확보한 물량은 약 5000대다.

BMW 뉴 i3(1분기),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C 350e와 더 뉴 GLC 350e(상반기), 재규어 I-페이스(하반기), 닛산 리프(하반기) 등 수입 친환경차도 속속 출시된다.

업계는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고 구체적인 판매 전략을 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환경부 보조금이 각각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 자체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지는 추세이나 실제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올해 10만대 판매를 넘길 것은 확실시되지만, 구체적인 성장 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신중국 자동차 시장 쑥쑥...인도, 독일 제치고 세계 4위 부상

2020년엔 日 추월 전망

중국은 9년째 1위 고수

전기차 등 기술도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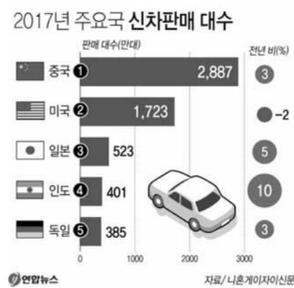
세계 자동차시장을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 중국은 지난해 9년째 1위 자리를 유지했고, 인도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시장으로 부상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일본도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은 판매 증가뿐 아니라 전기차(EV)나 자율주행차 부문 기술혁신도 앞서가며 자동차시장을 주도한다고 니혼게이지아·미이치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에 따르면 2017년 신차판매량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401만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의 자동차시장은 10년간 2배 성장했다.

이런 성장세는 인도 인구가 13억4000만명으로 세계 2위이며 젊은층 비율이 높음에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난 영향 받았다.

조사연구기관 IHS 마킷은 인도 시장이 향후 연간 10% 가까운 성장을 지속해



202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의 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700달러로 2007년(1020달러)보다 70% 늘었다.

중국에서 자동차 수요가 폭증한 것은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고서다. 인도는 3000달러에 미치지 않지만 농촌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차를 사는 층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인도 자동차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승용차에서는 최대기업 마루티 스즈키가 전년 대비 15% 늘어난 160만대 이상을 팔았다. 점유율은 49.6%로 전년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 정권 출범 이래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까지 실질 GDP 7%대의 고성장이 계속됐다. 2017년도는 새로운 세계 도입 영향 등으로 5~6%대의 성장률에 머물렀지만 2018년도는 세계 도입 영향이 약해지며 다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물가상승률도 최근에는 1~4%대의 낮은 수준에서 움직여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도로의 정비 속도가 느리고, 수도권 뉴델리 등에서 만성화된 극심한 정체 문제는 과제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정비돼야 한다.

한편 2017년 중국 신차판매는 전년 대비 3.0% 늘어난 2887만9000대였다. 소형차에 대한 감소 속도에 따라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EV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차가 77만7000대로 53.3% 늘었다. 대도시가 번호판 발급 제한을 강화, 번호판 취득이 쉬운 친환경 차 구매가 늘었다.

IHS 마킷은 2017년의 세계전체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9451만대로 추정한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자동차 판매가 글로벌 판매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블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블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기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취득가능

☎010-3613-3145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밭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담전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켤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금복식당

동구 공동 55-2(카톨릭센터 뒤) 찜탕, 계절 생선매운탕 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고전방

동구 공동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펜션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담양프로방스여행 예약받습니다.

☎062)464-0692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일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가득

동구 예술의길 31-16 동부고시학원 3층 뷔페백반 전문

대표 전옥희 ☎062)222-0589

무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단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빌딩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로도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